

다문화성 함양을 위한 해외 교사 언어 개발 방안

김 남 경 (대구가톨릭대)
<kerbell40@cu.ac.kr>



국문요약

한국어 교육에서 교사의 언어는 수업을 형성하고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 주된 도구가 된다. 그러나 해외 교육 현장에 있어서 교사언어는 처음 한국어를 접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성공적인 한국어 수업을 하게 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면서, 한국어 교사의 수업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본 논의에서는 해외에서 한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사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해외 경험이 있는 응답자와 해외 경험이 없는 응답자 사이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다. 해외 경험자의 응답 결과를 통해, 해외에서의 언어문화의 사전 습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해외에서의 문화보다는 언어가 비경험자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필요를 보이고 있다. 해외 교실에서의 한국어교육 또한 한국어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전달하는 데 중점이 있다 하겠다. 한국어교육의 경험이 있는 경우, 교육방법보다는 해외 현지에서의 언어, 생활언어보다는 교육언어, 수업단계 진행용 언어보다는 지식설명용 언어, 학생관리용 언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또한 현지언어의 필요시기와 분야에 대하여는 초급에 한정되어 있는 무경험자에 비해 자모교육에서 부터 현지언어가 필요하며, 어휘, 문법, 발음교육 분야에 모두 현지언어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를 반영하여 학습내용 관련 교사언어

(자모교육과 발음교육, 어휘교육, 문법교육)와 수업진행 관련 교사언어(수업단계 진행, 활동 지시 및 설명, 피드백, 교실통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또한 현지언어 중에서는 인도네시아어와 병행하여 제시한다. 인도네시아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알파벳으로 표기하고, 발음과 표기가 1:1로 대응되므로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언어이다. 본 논의에서는 한국어교사의 다문화성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현지 교사언어가 개발되어, 해외 현장에서의 안정적인 적응과 수월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한국어교육, 해외경험자, 교실언어, 수업진행, 지식설명, 인도네시아어

I. 서론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사언어¹⁾는 수업을 형성하고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 주된 도구가 된다. 그러나 해외 교육 현장에 있어서 교사언어는 처음 한국어를 접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성공적인 한국어 수업을 하게 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면서, 한국어 교사의 수업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해외에서 한국어 수업을 한다는 것은 현지 학생들과 대면하고 소통을 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수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것인지는 교사의 의사소통 역량에 달려 있는 것이다.²⁾

교사는 정확한 한국어어를 제공해주고, 언어를 배우는 데 꼭 필요한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며, 한국과 한국 언어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학생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현지언어³⁾가 반드시 필요하다.⁴⁾ 다행히 교실 안에서의 언어는 매우 복잡하거나 다양하

1) 박은하(2016, 31~31)에서는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사의 말을 ‘교사 말, 교수언어, 교사발화’ 등으로 쓰이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용어는 ‘교사가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 또는 변형된 말’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본 논의에서는 특별히 변형되거나 가공되지 않으나 내용면에서도 한국어교육뿐 아니라, 학생관리, 수업진행 전반에 관한 언어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좀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교사언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2) 김상수(2013, 170 재인용)에 의하면 실제로 교실 수업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학습에서 전체 수업의 70%를 교수자의 발화가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 비율은 강의식 해외 교실 환경을 감안하면 훨씬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3) Florian Carolus Horatianus(2008, 225)에 의하면, 지도자와 학습자 사이에 매개어가 필요한데, 학습자의 모국어가 가장 좋을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

나 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범위가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과 함께 좀더 다양해지고 수준이 높아지겠지만, 어느 정도의 제한된 발화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본 논의에서는 현지에서 효과적인 한국어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사언어를 제시하기로 하며, 이때 해외 언어 중 인도네시아어를 병행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II. 현지 교사언어 요구 현황

2.1. 조사 방법과 내용

해외 파견을 위한 한국어교사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6년 8월부터 9월까지 한국어교육 전공(복수전공, 부전공 포함)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외 한국어 교육 인력의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지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2차계의 예비조사를 거쳐 설문내용을 확정하였고, 이때 해외 경험이 있는 응답자와 해외 경험이 없는 응답자 간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해외 경험의 유무에 따른 항목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양적 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해외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는 해외 파견 전 예비 교사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 실제 경험자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며, 이러한 점은 해외 파견 교사의 적응성과 실제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설문 문항은 모두 7가지였는데, 한국어교육을 목적으로 (1) 해외에서 가장 필요한 것, (2) 현지언어 준비 시 가장 필요한 분야, (3) 수업할 때 가장 필요한 언어, (4) 현지언어가 필요한 시기, (5) 현지언어가 가장 필요한 수업 분야, (6) 가장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동남아어, (7) 기타 해외 현지언어에 대한 의견⁵⁾이었다.

설문대상자는 모두 100명이었고, 성별로는 남학생 17명, 여학생 83명, 국적별⁶⁾로는

4) 흔히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각각의 모국어 음소에 영향을 받아 영어 발음을 알아듣기 힘든 경우가 많으며, 영어를 전혀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김동환(2012, 64)에서도 태국에서도 매개어로 작용할 수 있는 영어의 학습 성취도가 한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임을 언급하고 있다.

5)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6) 국적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없었고, 다만 설문 6)번에 대해 응답하지 않거나 베트남 학생의

한국 89명, 베트남 5명, 중국 2명,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이 각각 1명씩이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⁷⁾의 경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경험자가 37명⁸⁾, 무경험자가 63명이었다.

2.2. 조사 결과

해외 한국어 교육에서 필요한 지식과 현지언어에 대한 요구 조사에 대한 응답결과는 해외 경험의 유무에 따라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해외 한국어교육 경험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1)번 항목은 해외 한국어교육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식에 대한 것이었으며, 각각 현지언어, 현지문화, 전공지식, 교육방법 등에 관한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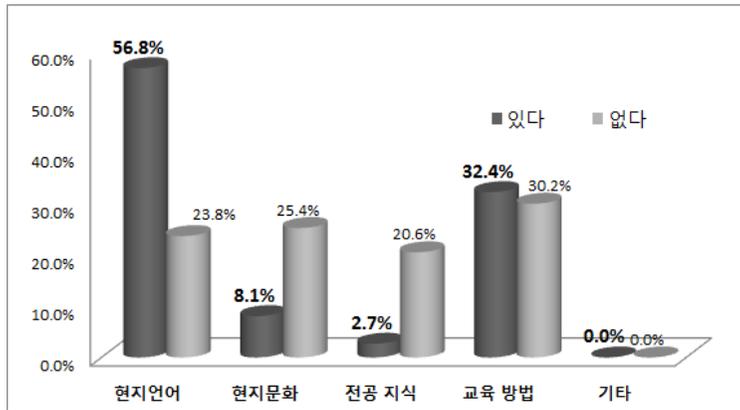
〈표 1〉 해외에서 가장 필요한 지식

지식분야	현지언어	현지문화	전공지식	교육방법	계
전체	36.0%	19.0%	14.0%	31.0%	100.0%
경험 있다 ⁹⁾	56.8% (21) ¹⁰⁾	8.1% (3)	2.7% (1)	32.4% (12)	100.0% (37)
경험 없다	23.8% (15)	25.4% (16)	20.6% (13)	30.2% (19)	100.0% (63)

전체적인 응답률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지언어, 교육방법, 현지문화, 전공지식의 순서로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한국어교육 경험자의 경우, 현지언어의 필요성에 대해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응답하고 있다. 다음은 해외에서 필요한 지식에 대하여 해외 경험 유무자의 응답을 비교한 것이다.

경우 베트남어인 '다'를 응답하기도 하였다.

- 7) 본 설문에서는 기타(중국 2명)를 제외하면, 동남아(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에서의 한국어 교육 경험자가 대부분이었다.
- 8) 본 설문에서 해외 경험이 있는 응답자와 해외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 응답의 양상에 현저한 차이를 보여, 해외 한국어교육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몇 차례 추가 설문하였다.
- 9) 해외에서의 '경험 있다'는 '있다'로, '경험 없다'는 '없다'로 나타내기로 한다.
- 10) 괄호 안의 숫자는 응답 인원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해외에서 가장 필요한 지식 비교

〈그림1〉과 같이 해외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 교육방법이나 전공지식에 대한 필요성이 현지언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지 문화에 대한 지식도 높은 수준으로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반면, 해외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언어에 대한 필요성이 56.8%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¹¹⁾ 또한 현지 문화나 전공지식에 대한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를 통해 해외 현장에서는 현지언어가 매우 필요함을 실감할 수 있다.

(2)번 항목은 현지언어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분야에 대한 것이었으며, 각각 생활언어, 교육언어, 행정언어 등의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현지언어 중 가장 필요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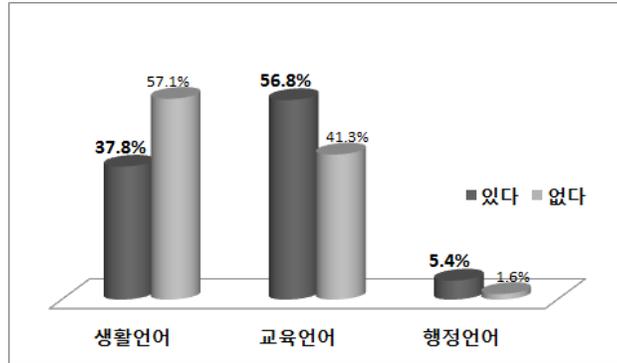
필요분야	생활언어	교육언어	행정언어	기타	계
전체	50.0%	47.0%	3.0%	0.0%	100.0%
있다	37.8% (14)	56.8% (21)	5.4% (2)	0.0% (0)	100.0% (37)
없다	57.1% (36)	41.3% (26)	1.6% (1)	0.0% (0)	100.0% (63)

전체적인 응답률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활언어, 교육언어, 행정언어의 순서로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해외 한국어교육 경험자의 경우, 현지언어

11) 현재 해외 파견 중인 한국어교사의 응답에 따르면 현지에서 영어를 쓸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며, 현지언어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임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현지화된 영어발음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중에서도 교육언어의 필요성에 대해 더 높은 수준으로 응답하고 있다.

다음은 해외에서 필요한 현지언어 분야에 대한 해외 경험 유무자의 응답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2〉 현지언어 중 가장 필요한 분야 비교

위와 같이 해외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 교육언어에 비해 생활언어의 필요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해외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언어의 비율이 생활언어의 비율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난다. 실제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교실 안에서의 실질적 수업 내용과 지식 전달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또한 해외에서는 행정언어도 필요함을 간과할 수 없다.

(3)번 항목은 실제 한국어수업 운영에 필요한 교실교육 교사언어 분야에 대한 것이었으며, 각각 수업진행, 지식설명, 학생관리, 활동관련 등에 관한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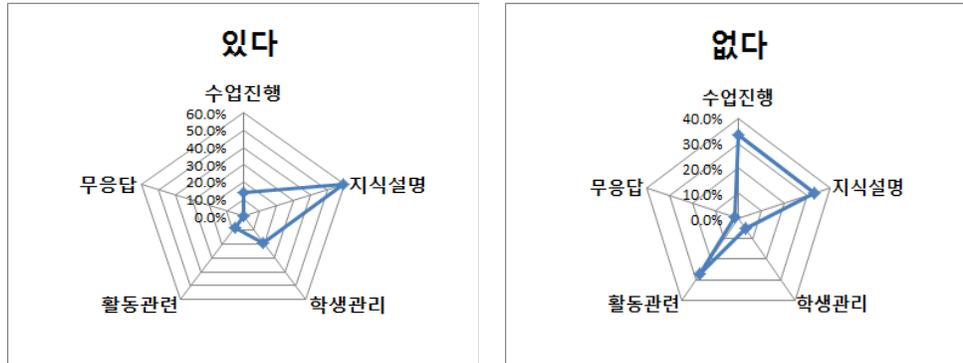
〈표 3〉 한국어수업 운영에 필요한 교실교육 언어분야

	수업진행	지식설명	학생관리	활동관련	무응답	계
전체	26.0%	43.0%	10.0%	20.0%	1.0%	100.0%
있다	13.5% (5)	59.5% (22)	18.9% (7)	8.1% (3)	0.0% (0)	100.0% (37)
없다	33.3% (21)	33.3% (21)	4.8% (3)	27.0% (17)	1.6% (1)	100.0% (63)

전체적인 응답률에서 현지언어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식설명용 언어, 수업진행용 언어, 활동관련 언어, 학생관리용 언어의 순서로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해외 한국어교육 경험자의 경우, 한국어수업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언어 중에서도 지식설명용 언어의 필요성에 대해 더 높은 수준으로 응답하고 있다.

다음은 해외에서 필요한 현지언어 분야에 대한 해외 경험 유무자의 응답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3〉 한국어수업 운영에 필요한 교실교육 언어분야 비교

위와 같이 해외 교육 경험의 유무에 따라 교육언어의 비율이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해외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 수업진행 언어와 활동관련 언어의 필요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해외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식설명용 언어에 대한 비율이 59.2%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위의 설문결과와도 관련이 되는 것으로, 해외 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일수록 수업 안에서 지식의 전달과 설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활동관련 언어나 수업단계진행을 위한 언어에 비해, 학생관리를 위한 현지언어의 필요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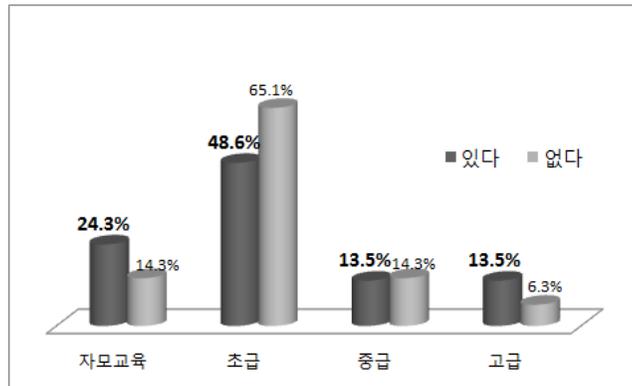
(4)번 항목은 단계별 현지언어 필요시기에 대한 것이었으며, 각각 자모교육, 초급, 중급, 고급에 관한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현지언어 필요 시기

현지언어 필요시기	자모교육	초급	중급	고급	계
전체	18.0%	59.0%	14.0%	9.0%	100.0%
있다	24.3% (9)	48.6% (18)	13.5% (5)	13.5% (5)	100.0% (37)
없다	14.3% (9)	65.1% (41)	14.3% (9)	6.3% (4)	100.0% (63)

전체적인 응답률에서 현지언어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는 초급, 자모교육, 중급, 고급의 순서로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해외에서 필요한 현지언어 필요 시기에 대한 해외 경험 유무자의 응답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4〉 현지언어 필요 시기 비교

위와 같이 대체로 초급과 자모교육 시기에 현지언어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외 경험이 없는 경우 초급에서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해외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모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24.3%로 비교적 높은 비율¹²⁾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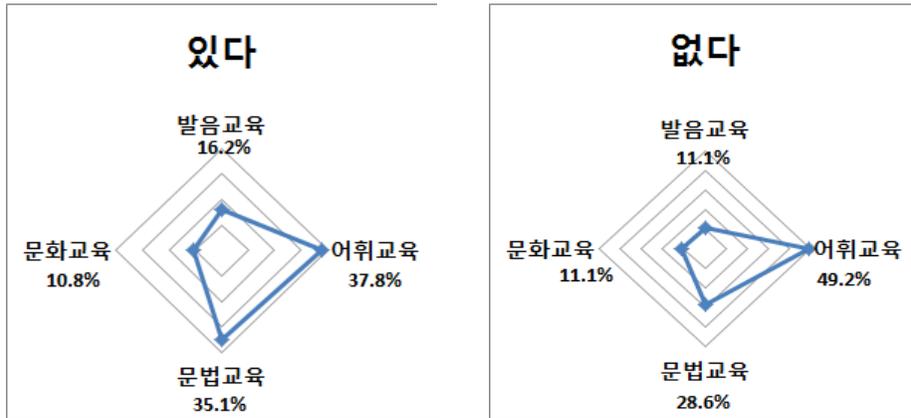
(5)번 항목은 한국어교육 분야별 언어 필요성에 대한 것이었으며,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교육 분야별 현지언어의 필요성

교육분야	발음교육	어휘교육	문법교육	문화교육	계
전체	13.0%	45.0%	31.0%	11.0%	100.0%
있다	16.2% (6)	37.8% (14)	35.1% (13)	10.8% (4)	100.0% (37)
없다	11.1% (7)	49.2% (31)	28.6% (18)	11.1% (7)	100.0% (63)

12) 이 항목에서 초급과 자모교육을 따로 나누어 설문하였는데, 예비 설문조사에서 한국어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자모교육과 초급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 자모교육에 대해서는 구체적 준비 없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충분히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피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응답 결과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자모교육에서부터 현지언어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전체적인 응답률에서 현지언어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어휘교육, 문법교육, 발음교육, 문화교육의 순서로 응답하고 있다. 다음은 실제 교육에서 필요한 현지언어 필요 분야에 대한 해외 경험 유무자의 응답을 비교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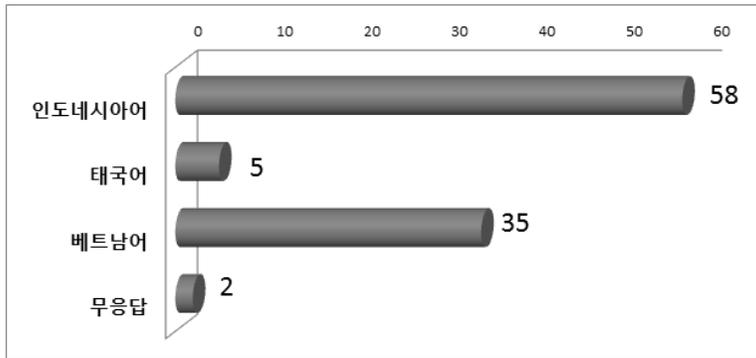
〈그림 5〉 한국어수업 운영에 필요한 교실교육 언어분야 비교

〈그림 5〉와 같이 대체로 어휘교육과 문법교육에 현지언어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외 경험이 없는 경우 어휘교육에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해외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어휘교육과 문법교육에서의 필요성이 대등한 수준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6)번 항목은 가장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언어에 대한 것으로 설문이다. 동남아 언어 3가지를 국적 정보를 주지 않고 실제 언어만을 제시하여 설문한 것이다. 아래는 한국어 ‘나를 따라 읽으세요’에 대응되는 문장이다.

- 가) ikuti baca setelah saya[이꾸띠 바짜 스펠라흐 사야]
- 나) กรุณาอ่านหนังสือ [가루나 안팍 잔카]
- 다) Hãy đọc theo tôi[하이 독 테 우 포이]

가)는 인도네시아어, 나)는 태국어, 다)는 베트남어이다.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언어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6〉 가장 배우기 쉽다고 예상하는 언어

가장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언어는 인도네시아어였고, 다음으로 베트남, 태국어 순서로 응답하였다. 인도네시아어는 익숙한 알파벳을 사용하고 음운의 대응이 대체로 1:1로 이루어지므로 쉬울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¹³⁾ 태국어는 글자 모양이 특이하여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였다. 또한 베트남어도 35%의 비율로 쉬울 것이라 응답하였는데, 성조를 고려하지 않았고 발음이 흥미롭고 재미있을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상의 설문을 통하여, 해외에서 한국어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와 경험이 없는 응답자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외 교실에서의 한국어교육 역시 한국어에 대한 지식과 그 전달에 있다고 하겠다. 한국어교육의 경험이 있는 경우, 교수방법보다는 현지언어, 생활언어보다는 교육언어, 수업단계진행용 언어보다는 지식설명용 언어, 학생관리용 언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또한 현지언어의 필요시기와 분야에 대하여는 초급에 한정되어 있는 무경험자에 비해 자모교육에서부터 현지언어가 필요하며, 어휘, 문법, 발음교육 분야에 모두 현지언어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를 통하여 3장에서는 실제 지식 설명을 위한 교실언어와 수업진행과 관련된 교실언어를 제시하기로 한다. 무엇보다도 현지언어(인도네시아어)를 함께 제시하여 한국어교육과 수업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Ⅲ. 해외 교사언어 개발 방안

교실 안에서 쓰는 교사의 언어는 대체로 유사한 표현이 반복되거나 날마다 비슷한

13)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는 교사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어는 한 달 정도만 꾸준히 공부하여도 기초적인 회화가 가능하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자모교육은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이 된다.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모교육을 받게 되므로, 교사의 적절한 현지 교실 용어가 절실한 것이다. 예1)은 한국어 모음(단모음과 이중모음)의 교육을 위한 교사언어이고, 예2)는 자음교육을 위한 교사언어이다. 해외에서는 자모교육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의 제약 등으각각의 자모 발음 교육이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편의를 위하여 ‘ㄱ’을 ‘k’로 가르친다거나, ‘ㅏ’를 ‘a’로 가르치는 등의 방법으로 자모교육¹⁷⁾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한국어의 정확한 음가를 처음부터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학습을 이어나가고 있다.¹⁸⁾

발음 교육과 관련된 교사언어는 다음 예3)과 같은 틀 안에서 활용할 수 있다.

(3) 발음을 들어보세요.	mendengarkan lafal[듣다아르간 라팔]
따라하세요.	mengikuti[이긋]
계속 연습하세요.	berlatih terus[버르라띠흐 트루스]
한번 해보세요.	Coba[쪼바]
정확해요.	kebenaran[끄브나란]
비슷해요.	mirip[미립]

학습자에게 있어서 초기 단계의 발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발음을 많이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것이다. 그런 다음, 들은 발음을 제대로 발음할 수 있는지, 즉 입력에 대한 출력이 정확하도록 교수해야 한다. 발음은 초기 단계에서 잘못 습득이 되면 화석화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므로, 학습자의 발음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교정해주어야 한다.

3.2. 어휘 교육을 위한 교사언어

다음은 어휘교육을 위한 교사언어이다.

(4) 새로운 단어가 있지요?	ada kata baru?[아다 까따 바루?]
발음해 보세요.	coba lafal?[쪼바 라팔?]

17) 오광근(2008, 203)에서도 자모교육에서 정확한 음가를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러 방식이 혼용되어 교사나 학습자를 혼란스럽게 하였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성을 밝혔다.

18) 중요한 시기에 정확한 음소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지속적인 발음의 오해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화석화되는 경우가 많다.

받침이 있으면, 을 kalau ada penggalangan을
 [깔라우 아다 갈랑안 을]
 받침이 없으면, 를 kalau tidak ada penggalangan를
 [깔라우 띠닥 아다 갈랑안 를]
 과거형이에요. masa lalu[마사 랄루]

예5)에서는 효과적인 문법 설명을 위한 최소한의 교사언어만 제시하였다. 현지에서는 아직 문법번역식 교수가 주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문법 설명은 학습자에게 한국어가 매우 어려운 학습이 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가능한 한 문법 설명은 줄이고 여러 예문을 통하여 사용 양상을 익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3.1. 수업 진행 관련 교사언어

3.1.1. 수업 단계 진행을 위한 교사언어

다음은 수업시작부터 정리까지 많이 사용하는 교사언어를 수업 진행 순서에 따라 제시한 것이다.

(6)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mulai pelajaran[물라이 뽐라자란]
 오늘은 1과를 공부할 거예요 Hari ini akan belajar pelajaran satu
 [하리 이니 아칸 블라자르 뽐라자란 사뚜]
 잘 들으세요 dengarkan baik-baik[등아르칸 바익-바익]
 따라하세요. ikuti[이길띠]
 대화문을 읽어보세요. membaca dialog[믄바짜 디아로그]
 살펴봅시다. mari lihat[마리 리햇]
 다음 selanjutnya[슬란줏냐]
 말하세요. silakan berbicara[실라칸 버르비짜라]
 연습해 보세요. mari berlatih[마리 버르라띠흐]
 문제를 풀어봅시다 silakan dijawab[실라칸 디자왁]
 잠깐 쉽시다 istirahat sebentar[이스띠라햇 스프따르]²⁰⁾
 숙제입니다 PR[뽀에르]

20) 인도네시아의 수업 시간은 보통 2시간이 한 단위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실제 수업은 1시간 40분 정도로 이루어지는데, 교사의 재량에 따라 중간에 잠깐 쉬기도 한다.

여기까지. sampai di sini[쌘빠이 디 시니]

예6)은 한국어 수업 단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교사언어를 제시한 것이다. 한국어 수업은 도입, 제시, 설명, 연습, 활동, 과제제시, 정리 등의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명확한 단계 진행용 교사언어는 학습자가 수업의 흐름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이끄는 도구가 된다. 수업에서 내용의 진행 단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수업 시작을 선언하고, 수업 안내, 해당 텍스트(대화문 등)를 듣기-읽기-말하기-쓰기의 순서로 제시하고 연습활동으로 이끄는 발화이다.

활동에 있어서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지시하고, 설명한 후, 활동하게 한다. 이때 예시를 반드시 들어 학습자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과제 제시와 차시 예고로 정리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막연히 수업 시간에 교사에 의해 이끌려지는 것보다 자신들이 어떤 순서에 의해 학습하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때 안정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것이다.

3.1.2. 활동 관련 교사언어

다음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활동 관련 교사언어를 제시한 것이다.

- (7) 연습해 보세요. mari berlatih[마리 버르라띠흐]
 짝과 이야기해 보세요.berbicara dengan partner
 [버르비짜라 동안 파트너르]
 그룹별로 하세요. coba dengan kelompok(=grup)[쪼바 동안 끌롬뵙]
 발표해 봅시다 coba presentasikan[쪼바 뿌레슨따시간]
 써 보세요 tulislah[뚜리슬라]
 계속하세요. silahkan teruskan.[실라칸 트루스칸]
 다시 하세요. coba lagi[쪼바 라기]
 도와줄까요? perlu saya bantu? [뿌를루 사야 반뚜기]
 정답은 ~입니다. jawabannya ~[자왓안냐 ~]
 표를 보세요 melihat diagram.[물리햇 디아그람]
 그림을 보세요 melihat gambar.[물리햇 감바르]
 상상해 보세요 coba mengangan-angan[쪼바 양안 양안]
 다 했습니까? sudah?[수다흐기]

멈추세요.	berhenti[버르흔띠]
(8) 맞아요.	betul[버뜰]
좋아요.	Baiklah.[바이라흐]
잘했어요.	baik.[바이]
박수!	tepuk tangan[뜨북 땅안]
(9) 아! 아니에요.	ah!, salah.[아! 살라흐]
다시 해보세요.	coba lagi[쪼바 라기]
비슷해요.	mirip[미립]
천천히 해보세요.	pelan-pelan[쁠란 쵸란]
(10) 조용히 하세요.	coba diam.[쪼바 디암]
그만하세요.	berhenti[버르흔띠]
여기를 보세요.	coba perhatikan ini[쪼바 빠르하띠깐 이니]

교실활동은 학습자들이 활동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여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²¹⁾ 정확하고 활동을 설명하고,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 예7)은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듣기-읽기-말하기-쓰기를 비롯한 영역별 활동과 둘 이상이 결합된 통합활동 등을 반영하였으며, 교사와 학습자간의 활동, 학습자 개인적인 활동, 학습자와 학습자의 활동, 그룹별 활동 등 다양한 교실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교사언어이다.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적절하게 발화할 수 있다.

예8)과 예9)는 교사의 피드백이다. 예8)은 긍정적인 피드백이고, 예9)는 부정적인 피드백이 된다. 활동이 끝난 후에 활동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명확히 해 주어야 해 주어야 한다. 다만, 수업의 분위기를 고려하고, 학습자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성취동기를 높일 수 있는 교사언어가 필요하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의 교사의 교사언어는 교실 분위기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학습자에게 한국어 학습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자존감을 형성해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10)과 같은 교실 통제 언어도 가능한 학생의 학습에의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꺾지 않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1) 동남아의 한국어 교육 방법은 대체로 강의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학습자들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IV. 결론

본 논의에서는 해외에서의 성공적인 한국어수업을 위해 해외 현지언어를 겸비한 교사언어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현지언어(인도네시아어)를 함께 제시하였다.

먼저 해외 현지언어에 대한 교사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해외 경험이 있는 응답자와 해외 경험이 없는 응답자 사이에 다소 큰 차이가 있었는데, 해외에서의 한국어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응답결과를 통하여 실제 해외 한국어교육에서 한국어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현지언어가 매우 필요함을 실감하였다. 한국어교육의 경험이 있는 경우, 교육방법보다는 해외 현지언어가 훨씬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현지언어 중에서도 생활언어보다는 교육언어, 수업단계진행용 언어보다는 지식설명용 언어, 학생관리용 언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또한 현지언어의 필요시기와 분야에 대하여는 초급에 한정되어 있는 무경험자에 비해 자모교육에서부터 현지언어가 필요하며, 어휘, 문법, 발음교육 분야에 모두 현지언어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를 반영하여 학습내용 관련 교사언어(자모교육과 발음교육, 어휘교육, 문법교육)와 수업진행 관련 교사언어(수업단계 진행, 활동 지시 및 설명, 피드백, 교실통제)를 현지언어와 병행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교육과 수업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수업 자료와 수업 환경이 매우 부족한 해외 현장에서 수업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실 용어들이 개발되어, 해외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안정적인 적응과 수월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김동환. 2012. 모국어 지배 환경에서의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의 사례 연구: 태국 내 학습자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3, 61-98.
- 김상수. 2013. 한국어 교사 발화에 나타난 발문 전략 연구. 한국어학 60, 167-188.
- 김재욱. 2007. 한국어 수업에서의 교사 발화 연구. 이중언어학 34, 27-47.
- 김호정. 2006. 한국어 교사에게 필요한 교육 문법 지식 내용 연구: 관형표현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2, 159-190.
- 박선욱. 2003. 한국어 교사의 질문 유형과 기능에 대한 연구. 화법연구 5, 371-399.
- 박은하. 2016. 한국어 교실에서의 교사 말 유형 및 특징과 사용 양상. 시학과 언어학 32, 27-49.
- 신현숙. 2011. 의미망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한국어문학연구 56, 449-479.
- 오광근. 2008. 기초 단계의 한국어 자모 교육-통합교재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53, 181-208.
- 조향숙. 2013.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교양교육연구 7, 531-559.
- Florian Carolus Horatianus. 2008. 인도네시아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제 문제. 한국어언어문화학 5, 225-242.

● 투고일: 2017. 1.23. ● 심사일: 2017. 1.31. ● 게재확정일: 2017. 2.13.

A development of overseas teacher language to cultivate multiculturalism

Kim Namgyeo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eachers' instructional language is a main medium that forms and leads the class. However, in the overseas Korean language education field, teachers' instructional language is a fundamental means to have a successful Korean language class for foreign learners and is essential for Korean teachers' class progress. For the successful overseas Korean language education,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to find out the teachers' demands over the required local language. As a resul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experienced Korean language learners and inexperienced Korean language learners. With the response results of the overseas Korean language learners,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he overseas classroom is to convey and spread the information of Korean language. In the case of the experienced Korean language learners, the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more local languages than teaching methods, educational languages than common languages, knowledge explanation languages than classroom teaching languages, and student management languages. In addition, for where and when the local language education is needed, the experienced learners need more local language education than inexperienced learners limited for the beginner, from Hangeul alphabet education. It indicates that the local language education is needed for the all fields of vocabulary, grammar and pronunciation education. In response to reflect the result, this study presents the instructional language related to the learning contents including Korean alphabet, pronunciation, vocabulary, grammar education and the instructional language related to the class progress including class progress stage, activity instructions and explanations, feedback, classroom control. Students will be able to learn Korean effectively as Indonesian spells

in English alphabet that Koreans are familiar with, and is also one-to-one correspondence between pronunciation and spelling. Although the Korean education center overseas is lack of teaching materials and educational environment, various local instructional languages will be created to improve the quality of teaching and this allow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academic excellence and practicality i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field.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Overseas experienced learners, Classroom language, Classroom teaching, Knowledge explanation, Indonesian.

부록1

<해외 파견을 위한 한국어교사 설문지>

성 별 : 나이 : 국적 :

해외교육경험 : 가) 있다 나) 없다

1. 한국어 교육을 목적으로 해외에 가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가) 현지언어 나) 현지 문화 다) 전공 지식 라) 교육 방법 마) 기타
2. 한국어 교육을 목적으로 해외 현지언어를 준비할 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가) 생활 언어 나) 교육 언어 다) 행정 언어 라) 기타()
3. 한국어 교육을 목적으로 교실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 수업진행용 언어(자, 시작합니다, 다음)
나) 지식설명용 언어(이것은 이것과 같아요(비슷해요))
다) 학생관리용 언어(조용히하세요, 잘했어요)
라) 활동관련 언어(짜과 이야기하세요)
마) 기타()
4. 현지에서 한국어 교육을 한다면 현지언어가 가장 필요한 시기는?
가) 한글자모 나) 초급 다) 중급 라) 고급 마) 기타()
5. 현지 한국어 교실에서 현지어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가) 발음교육 나) 어휘교육 다) 문법교육 라) 문화교육 마) 기타()
6. 동남아의 언어이다. 이 중 가장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국어 : 나를 따라 읽으세요.

- 가) ikuti baca setelah saya[이꾸띠 바짜 스펠라흐 사야]
 - 나) กรุณาอ่านตามฉัน [가루나 안맘 잔카]
 - 다) Hãy đọc theo tôi[하이 독 테 우 토이]
7. 위 항목과 관련하여 해외 한국어교육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해외 현지언어에 대해 적어주세요.